



NEWS LETTER

2020년 8월 24일 Vol. 382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정우 교수,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학술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가 2020년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제1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4개 대학병원에 방문한 지역사회 획득 급성세균성전립선염 환자와 전립선 조직검사 후 발생한 급성세균성전립선염 환자들의 임상 및 미생물학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획득 감염에 비해 전립선 조직검사 후 발생한 급성 세균성 전립선의 경우 균혈증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경험적 항생제에 대한 저항률 또한 매우 높아 전립선 조직검사 후 발열을 동반한 급성 전립선염이 발생할 경우 항생제를 처음부터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립선에 발생하는 세균감염에 있어 발생 원인이 다른 두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에 대한 임상경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임상 의사들이 급성세균성전립선염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행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8월 13일 말복 이벤트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해 보양 도시락을 제공했다. 이번 이벤트는 환자 가족들이 간병으로 인해 빈번히 식사를 거르고 있어 잠시나마 편안한 식사를 돕고자 도시락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매월 1회 병동 가족 실내에 카페를 오픈해 자유롭게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서상연 센터장은 “앞으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 내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생일파티, 소원 들어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근무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8월 6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소진관리 프로그램 ‘안녕, 스트레스’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보조원 등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이날 강의를 위해 외부 임상심리사를 초빙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와 대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해원 병원장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 돌봄을 위해서는 먼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